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23년 12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1@naver.com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8
- 전화번호 : 02-880-7726

김병연(공주교육대학교)

올해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3월에는 정기전보로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로 이동했고, 8월에는 공주교육대학교로 왔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고 마음 깊이 새겼던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는 말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한해, 새로운 자리에서 바라본 우리 교육과 도덕과 교육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건조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희와 클라쓰(class)가 달라!”와 같은 드라마 대사처럼 집단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상황에도 어울립니다. 한편 “생각 차이에는 나름 이유가 있으니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해해 보자.”와 같이 도덕 교사의 마음에 쏙 드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해석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지는 우리 교육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주에 발 딛고 가장 먼저 마음 깊이 들어온 풍경은 지역 위기였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소액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두툼한 종량제 봉투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 문제가 처음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으로 회자 되는 우리 사회, 특히 지역의 위기가 제 삶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아들 집에 오셔서 근처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보면서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나!” 감탄하며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던 아버지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체 초등학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에 570만 명 이상이었던 것이 2023년 현재 258만여 명으로 줄었고, 2029년이 되면 170만여 명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은 무수히 많은 다른 사건, 현상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인구 문제는 교육공동체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문 닫는 학교가 곳곳에서 늘고, 지역 소재 대학이 폐교의 위기를 겪은 지 오래입니다. 걱정이 덜 했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라지면 그 지역사회 또한 위기를 맞습니다. 관련하여 국립대 통합이 논의되고 일부 실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문제, 지역 인구 감소 등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상수(常數)로 두고 효율성에 초점을 둔 통합 논의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도덕과 교육공동체에서도 함께 관심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대학교로 선 자리를 옮기면서 새롭게 보인 풍경은 교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지켜보며 마음에 들어온 교대 구성원들의 삶은 중등교사였던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대학에서의 공부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강의실에서 도덕 수업을 시연했던 예비 교사를 다음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체육복 입은 모습으로, 음악관 앞에서 악기

를 든 모습으로 만나곤 합니다. 대부분 교사를 꿈꿔왔고 준비해온 이들이기에 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업 실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팀 단위 활동과 수업 시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과 구성원이 함께 듣는 수업이 많아 근래 보기 드문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습 기간에 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거뜰히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생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교생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구요. 그런데 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늘 허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얼마만큼 학생들의 마음에 담겼을까?’,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준비한 수업에 얼마만큼 만족했을까?’, ‘저렇게 야무진 답을 하지만, 학교 밖 모습은 왜 그에 미치지 못할까?’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과목과 구분되는 도덕 수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막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정직, 성찰, 공정, 통일 등 제시된 가치·덕목을 어떤 발문을 통해 상호작용할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가르칠 내용이 너무 어렵고 많아 힘들었다면, 초등학교에선 한 마디면 끝날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의욕을 갖게 하는 교과서 서술은 어떠해야 하는지 더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겠다 마음먹고 있습니다.

도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오랜 성찰과 노력 덕분에 도덕과 교육은 이론적 토대를 갖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덕성 발달에 대한 논의와 우리 사회와 학교 현실을 함께 고려한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학교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일상을 성찰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바른 가치판단을 내려 주체적으로 행동할 힘을 기르는 도덕교육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새롭게 선 자리에서 비로소 보였던 두 가지 풍경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보일 풍경도 담담히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보이는 각양각색의 풍경을 두루 살펴 우리 교육과 도덕과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각자의 풍경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감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과 사회를 위해 도덕과 교육공동체도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학회 구성원 모두 따뜻함이 가득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학회 동정

1. 동계학술대회 진행



12월 8일(금) 오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에서 제35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도덕적·사회적 정서와 도덕·윤리교육’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III

회원 동정



○ 본 학회의 회장이신 추병완교수님께서 도서출판 하우에서 「문화 지능」을 번역 출간하셨습니다. 문화지능은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다문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이 책은 문화 지능의 등장 배경과 역사, 개념 정의, 측정 방법, 문화 지능 발달 요인 및 방법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문화지능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뿐 아니라 해외지사로 직원 파견해야 하는 기업과 회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중등교육 실천위원회 위원이신 김윤경박사님께서 2023년 11월 21일에 다봄교육에서 「야누시 코르차크에게 아동 권리를 묻다」를 번역 출간하셨습니다. 이 도서는 아동 기본권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코르차크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 그의 일생과 아동 권리 개념, 이에 대한 교실 적용 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중등교육 실천위원회 위원이신 김윤경박사님께서 2023년 8월 24일에 다봄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 (개정2판)」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도서는 2020년 책의 초판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변화된 학교와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진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정서학습의 탄생부터 뒷받침하는 이론, 국가수준 적용 사례, 수업 유형 사례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어 국내 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교원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초에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납부 계좌 : 국민 206001-04-182088, 예금주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중

납부 명단

- 특별회비: 정창우(20만), 박동준(100만)
- 연회비(이사 및 임원진): 강민겸(3만), 고정아(3만), 권재은(3만), 김기현(3만), 김남준(10만), 김도건(10만), 김민지(3만), 김병연(3만), 김상돈(3만), 김아영(3만), 김완수(3만), 김윤경(3만), 김진하(3만), 김철호(3만), 김하민(3만), 노영란(3만), 문일호(3만), 박보람(3만), 박영주(3만), 박찬석(10만), 박찬영(3만), 박형빈(10만), 배병대(3만), 송선영(10만), 양해성(3만), 손경원(3만), 송선영(10만), 송애리(3만), 신원동(3만), 신호재(3만), 심한식(5만), 엄국영(3만), 이기연(3만), 이동현(3만), 이범웅(3만), 이인재(3만), 이정렬(10만), 장동익(3만), 전성은(3만), 정대성(3만), 정탁준(3만), 조주현(10만), 차승주(3만), 최윤정(3만)
- 연회비(일반 회원): 강미숙(5만), 고경수(3만), 고동욱(3만), 고미숙(3만), 김석권(3만), 김승우(3만), 김은미(3만), 김인의(3만), 김홍태(3만), 남궁환(3만), 양다인(3만), 엄국영(6만), 유경아(3만), 유다겸(3만), 윤건선(5만), 이광호(3만), 이경근(3만), 이두연(3만), 이소연(3만), 이승철(3만), 이호찬(3만), 정우석(3만), 주소연(3만), 박상욱(3만), 박서라(3만), 박홍석(3만), 배성제(3만), 서요련(3만), 최효식(3만), 한지윤(3만), 한희창(3만), 황명자(3만), 허진웅(3만), 홍석영(10만)
- 평생회원: 김상범, 김연숙, 김혜진,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신중섭, 양방주, 이경희, 이영문, 이인태, 이인정, 장유정, 정탁준, 최형찬, 허윤희, 황인표

※ 23. 12. 10. 기준

2. 투고 안내

○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82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82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입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료: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2021.4.28. 개정)